

# 『맹자』(孟子)

임준형 (법학부 4학년)



어떤가. 무려 첫 장부터다. 국민들이 정의(正義)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였고, 이제 오히려 그로 인해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어떤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것은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저작이다. 『맹자』를 펴서 읽으면, 이외에도 수천 년을 뛰어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는 구절들로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고전이 가진, 그리고 『맹자』가 가진 가치이다. 『맹자』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인본적이고 평화적인 문명을 구축하기 위해 물질주의와 군사주의에 저항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고뇌를 대표하고 있는 고전이다. 그렇기에 그 성립 이래 2500년간 동아시아 세계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당대의 지성인들은 『맹자』 읽기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때마다 『맹자』는 시대에 맞게 재해석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 원천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가 처한 위기의 극복 대안 역시, 『맹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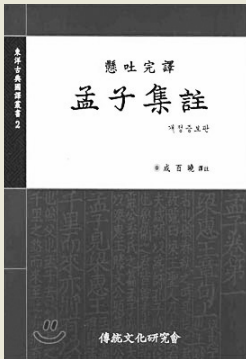
『맹자』는 수천 년 간 중국을 지배해 온 정치·윤리·사회·사상 체계인 유가(儒家)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의 하나이다.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 공자(孔子)에 의해 주창되었던 유가 사상이 군국주의·패도정치가 만연한 전국시대에 이르러 한계를 드러냈을 때, 맹자는 유가를 보완·심화하고 체계화하여, 인의(仁義), 인정(仁政), 왕도정치(王道政治), 역성혁명(易姓革命) 등을 주장하면서 더욱 적합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형태의 정치사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측은지심(惻隱之心), 즉 ‘인(仁)’ 내지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이 인(仁)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으로 보아 인간이 이러한 본성에 집중한다면 이것이 다른 기관들의 활동을 이끌게 하여 이를 통해 도덕적 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맹자는 ‘인(仁)’을 각 개인이 타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아, 이에 따라 국가 혹은 가정에서 구성원들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인(仁)’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된다고 본 것이다. 또 맹자는 이 인(仁)을 키우고 확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 인(仁)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仁)과 덕치주의(德治主義)를 기초로 한 ‘왕도정치(王道政治)’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은 이후 후한(後漢)의 조기(趙岐)와 송(宋)의 주희(朱熹)에 의해 정리되고 또 유학의 핵심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맹자』의 제1장「양혜왕」(梁惠王)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

“왕께서는 왜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중요할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나라에 이익이 될까?’ 하시면 대신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家에 이익이 될까?’ 하고, 선비와 서민들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만을 다룬다면 국가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지난 호부터 <열린지성>에서는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을 중심으로 고전을 바라보는 혜안을 기르는 “고전산책”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수천 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동양의 고전 <맹자>를 법학부 4학년 임준형 학생의 소개로 만나봅니다. 또한 이상원 선생님의 소개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웃음과 슬픔 속에서 간결하게 드러내는 체호프의 단편들에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 봅니다.



그러나 맹자의 사상은 혹독한 비판들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순자(荀子)의 비판을 들 수 있다. 순자는 그의 글「性惡」에서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한다. 이 본성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인간은 악하게 된다. 聖人は 악한 본성을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맹자의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비판

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문명은 순자보다는 맹자의 인간관을 보다 신봉하여 그것을 기초로 한 정치체제를 건설하였고, 이후 수천 년 간 일관되게 이 유교라는 이상주의적 정치체제에 의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유교문명권이 서구의 충격에 의해 붕괴하고, 이후 세계가 “합리적” 혹은 “이기적” 개인들을 전제로 하는 서구 근대의 윤리에 의해 지배되면서, 맹자의 “본성에 仁을 가진 도덕적 개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덕치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성중심의 서구 문명이 지배해 온 현대 사회에서 맹자가 주장했던 사회적 관계의 기초로서의 동정심은 비과학적·비논리적·감성적인 것으로 격하되었다.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성’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성 중심의 현대 사회는 인류절멸의 위기를 가져온 두 차례의 세계 대전 겪었으며, 현재에도 전쟁과 테러, 빈부격차와 억압의 확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인간의 동정심이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신경생물학 연구 성과로 1996년 ‘독일 생물학적 정신의학회’가 수여하는 유명한 오르가논상을 수상하기도 한 독일의 의학자 요아힘 바우어는 그의 저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원칙』(2006)에서 측은지심, 즉 인간의 동정심이 거울신경세포체계라는 신경생물학적 근거에서 비롯된 인간의 근본적 속성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역시 동정심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토대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거울신경세포 체계를 통해 사회적 공감 및 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은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가 되어 이것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맹자가 인(仁), 즉 동정심이 인간의 본성임을 근거 없이 직관적으로 규정했다면, 요아힘 바우어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역시 동정심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토대임을 주장한다.

근대 문명은 산업혁명과 이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출현, 사회혁명 등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이룩했고, 인권 자각과 그 권리 신장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문명은 첨단무기를 앞세운 갈등과 전쟁, 물질주의의 만연, 개발 위주의 환경 파괴, 계급이나 인종 차별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문명적 도약을 도모해야 할 이 시점에서 근대를 작동해온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윤리를 비판적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요아힘 바우어의 과학적 근거로 보완된 맹자의 동정심에 대한 사상은 더 이상 이성만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거나 이기심만이 인간의 과학적 속성이라는 전제를 무너뜨린다.

현대 사회는 이제 서구적 이성주의를 넘어선 사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과 테러, 빈부격차와 억압의 확대는, 타자에 대한 동정심 약화, 역지사지의 태도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고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존만이 진정한 부국강병의 길이라 설파했던 『맹자』를 다시 읽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맹자는 진정한 부국과 강병은 물질이나 군사력 증가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공유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능력에 달렸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맹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인간이 본성적으로 보유한 동정심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전면 화하고, 동정심을 발휘하는 본성이 잘 보존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현대인의 동정심은 근본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후 현실 정치적 가치·문명대안적 가치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전국시대의 군사주의, 금권주의, 군주주의에 저항했던 맹자의 열변은 이렇게 다시 근대 문명이 낳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체호프의 단편들



# 선명한 삶의 단면, 절절한 인간의 모습

이상원 (기초교육원 인문학 글쓰기 강의교수)

체호프는 1860년에 출생해 1904년에 사망한 러시아 작가이다. 백년에 가까운 시간 차, 그리고 멀게만 느껴지는 지리적 거리를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가 도대체 왜 그의 단편소설을 읽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법하다.

일단 소설을 왜 읽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여러 이유 중 단연 으뜸은 간접적인 인생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한 인간 이해이리라.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한번 살고 가는 존재이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고 따라서 이해와 공감의 폭도 좁아진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다른 조건에서 다른 사람이 보내는 삶에 대한 간접 경험이다. 특히 소설은 활자가 유도하는 상상력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면에서 풍요로운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현대 소설만 읽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이 시대의 소설만 해도 넘치도록 많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작가들의 소설에서 겪는 간접 경험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과는 다른 제도, 다른 관습이 존재하던 공간을 접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경험인가.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한 역사 공부이다. 게다가 그런 낯선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지금의 나와 별 다를 것 없는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인간의 보편적 모습을 절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체호프의 단편들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읽을거리이다. 작가가 드러내는 삶의 단면은 손에 잡힐 듯 선명하다. 하급 관리, 귀부인, 소시민, 마차꾼, 일꾼으로 팔려간 어린 아이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은 소박하면서도 솔직하다. 공감을 끌어내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극장 주인과 함께 살면서는 연극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고 다시 목재 도매상과 함께 살 때는 목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여인, 사랑하는 상대에게 자기 인생은 물론, 생각이나 의견까지도 송두리째 바치는 여인 올렌카를 만나 보라(‘귀여운 여인’). 극장에서 한바탕 재채기를 하다가 앞줄에 앉은 상사에게 침이 튀어버리는 바람에 노심초사하던 끝에 그만 상심하여 죽고 마는 체르바코프의 이야기는 웃음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준다(‘관리의 죽음’). 입 하나 털기 위해 남의 집에 보내져 온갖 심부름과 애보기에 시달리며 구박 받는 아이들의 모습은 절로 눈물을 자아낸다(‘반카’, ‘자고 싶다’).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주정뱅이 손님들에게 시달리다가 숙소로 돌아와 말(馬)을 상대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마차꾼 요나는 또 어떤가(‘애수’). 인적이라고는 없는 숲길에서 마차꾼이 강도로 돌변하지 않을까 겁에 질린 손님이 위협적인 허풍을 떨자 오히려 마차꾼이 도망가 버리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진다(‘기우’).

체호프의 단편들은 짧고도 쉽다. 이는 오늘날 독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특징이리라. 채 열 쪽 분량이 안 되는 작품도 많다. 문장도 간결해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을, 삶을 바라보는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은 긴 여운을 남긴다. 가히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고 하겠다.